

## 美, 中國에 「슈퍼컴」 판매 결정

화해조처로 8백만 달러짜리

美 행정부는 中國에 대한 화해조처로 8백만 달러짜리 슈퍼컴퓨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7일 시애틀에서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中國의 錢其深 외교부장에 게 정식통보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이와함께 클린턴 행정부는 中國에 대해 지금까지 취해온 핵발전소 부품수출 금지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 이를 역시 中國측에 통보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클린턴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中國을 고

립시키지 않고 포용하려는 전략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클린턴 행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中國시장을 보다 광범위하게 장악하기로 작정했다고 전했다.

## 세계자동차업계 中國 진출 각축

美·日이어 우리나라도

中國의 엄청난 잠재시장을 겨냥한 세계 자동차업계의 中國진출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對中國 자동차 진출을 위해 현재 통산성 차관이 업계

대표단을 이끌고 中國을 방문 중이며 미국도 연내에 제너럴 모터스社, 포드社 등의 관계자들로 대표단을 구성, 中國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내달초 朴三奎 상공자원부 제2차관보를 수석

대표로 하고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10명 내외의 정부대표단을 中國에 보내 합작투자를 비롯한 對中國 진출문제를 中國정부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 선진국들 경쟁력 강화책 발표

수출 증대를 위한 경쟁 치열

수출상품의 경쟁력 강화가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잇따라 경쟁력 강화정책을 내놓고 있어 수출 증대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경쟁력 정책위원회(CPC)는 지난달 초 의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해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각종 수출제한정책을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CPC는 對日 무역정책과 관련, 일본 엔화가 지금과 같이 절상되도록 계속 일본에 압력 가하라고 촉구하고 만일 지난 6개월간 계속된 엔화절상추

세가 중단된다면 일본의 무역 흑자는 전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CPC는 이어 미국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자 감축노력을 계속하면서 교육, 훈련, 기술 및 무역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